



WTO KILLS FARMERS

이경해 열사 서거 2주기를 맞이하며...

멕시코 칸쿤에서 목 놓아 외치시던 열사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아직도 세계인의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새벽, 라디오와 TV 속보를 통해 전해진 이경해 열사의 자결 비보는 국민들에게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막연히 인식하고 있던 WTO협상은 국내 언론과 정부에서 홍보해 왔던 세계화의 과정일 뿐이었는데 누군가는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인도 플라치마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카콜라 저항 운동은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무분별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대표적인 반발 활동입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다국적기업은 미국, EU, 일본, 호주 등과 같은 선진 강대국에서의 활동은 멈추고 국제적 지위가 약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과 경제, 생태를 파괴하는 만행을 합법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 지역은 식수오염, 농업용수 고갈, 토양오염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회사측의 거짓보고서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합법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 이하의 움직임은 국가경제가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천민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WTO라는 허울 좋은 국제교역체제를 통해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별 특성과 산업별 특성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자본만을 쫓아 움직이는 이들 국가의 비뚤어진 경제관이 바뀌지 않는 한 WTO가 표방하는 공존공영과 호혜평등의 구조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언론을 이용하여 WTO의 본질을 흐리고 국익을 이유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경해 열사의 거룩한 희생을 계기로 국내언론과 국민들의 여론은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부 편향적 논조에서 점차 객관적인 입장으로 논조를 바꾸며 WTO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경해 열사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치며 WTO의 실체에 점차 접근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WTO!!!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전세계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 또한 그 속에서 희생되어져 갔으며 전세계 소농들은 설 자리를 잃고 WTO라는 자본집약체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이경해 열사는 우리 농민들을 핍박하고 세계 소농들을 갉아먹는 WTO에 몸으로 항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몸 기꺼이 내던져 WTO의 부당함을 온천지에 알려내고 전세계 농민들에게 투쟁의 불씨를 지퍼주었습니다. 열사의 희생으로 우리는 WTO를 인식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으며 투쟁이 무엇인지, 투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대쪽 같은 신념, 결코 꺾이지 않는 님의 목표는 이제 350만 농민, 나아가 세계 농민의 정신 속에 아로 새겨져 대대손손 끝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열사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철책 위에서 피를 토하며 “WTO가 농민을 죽인다. 나는 염려하지 마라. 열심히 투쟁하라”는 이 열사의 마지막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350만 농민들은 그의 의연하고 당당했던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 목숨 내던지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열사의 죽음은 비단 우리 농업과·농촌·농민의 현실뿐 아니라, 세계 소농들의 희망의 빛이었으며 전세계 민중들의 처해있는 절박한 현실을 WTO에 알려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열사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350만 농민들은 이 열사의 뜻을 받들어 민족의 생명줄인 우리 농업을 희생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강력히 투쟁으로 경고하고, 농촌희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민이 웃음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자!

“당신이 농민운동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걸어왔던 지난날의 처절한 투쟁의 시간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었던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몸은 가셨지만 영혼만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 몸만이 만물의 섭리처럼 갔을 뿐 당신의 고결한 정신과 의지는 우리 곁에 남아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

- 서정의 회장 추도사 中 -